◇20세기 한국 고승 20인의 진영이 전통자수로 제작된다. 왼쪽 위부터 만공, 용성, 영호, 만해, 한암, 효봉, 동산, 대륜, 금오, 운허, 청담, 경봉, 묵담, 고암, 구산, 자운, 탄허, 성철, 월산, 경산 스님.

북한 전통 자수로 한땀 한땀 큰스님 20인 다시 우리 곁에

최고기량의 北 만수대창작사 제작

22~28일 불일미술관…탱화도 선보여

'근세 남한 고승들이 북한의 전통자수 예술가들에 의해 새롭게 태어난다.'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과 현대불교신문사는, 20세기 한국불교의 고승 20명의 진영을 전통 자수화한 '아! 큰 스님—북한 만수대창작사 作 근세 고승진영 자수전'을 22일부터 28일까지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개최한다.

불교문화기획단·본사 주최 자수展

이번 전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명주실과 비단에 천연염료를 도색한 전통 자수기법에 의해 한땀 한땀 수놓은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전통자수로 만든 '석굴암 부처님 불두'.

실제 예술에서 자수라는 장르는 워낙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해 현대사회로 갈수록 명맥만을 간신히 이어갈 정도로 어렵게 전승되는 분야다. 다만 북한은 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세계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으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에서조차도 길게 잡아 5년 이내에 손자수 인력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해 이번 작품들은 국보급 수준으로 희소가치가 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번 작품 제작에 참여해 주목을 받고 있는 만수대창작사는 1959년 창립됐으며 조선노동당 중앙당 직속으로 현재 수예창작단을 포함한 20여개의 분야별 창작단과 제작단에 1백여명의 인민예술가와 공훈예술가 등 4천여명이 소속돼있는 최대 규모의 단체. 이번 전시를 위해 4개월전부터 한 작품에 4명씩 조를 맞춰 작품 제작을 해 왔다.

작품전에 등장하는 고승들은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거리는 명실공히 20세기의 대표 선지식들. '만공', '용성', '영호', '만해', '한암', '동산', '효봉', '금오', '운허', '청담', '경봉', '고암', '자운', '탄허', '경산', '구산', '성철', '월산', '묵담', '대륜' 스님이다. 고승진영 작품 외에도 '수월관음도', '지장도', '아미타탱화' 등 고려불화 4점과 석굴암 본존 부처님의 불두, 관세음보살상, 지장보살상 등도 선보인다.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사장 도후 스님은 "이번에 진영 자수가 전시되는 큰 스님들은 질곡의 시대상황속에서 종교계 뿐 아니라 우리 역사와 사회를 이끌어 온 정신적 지주들이다"며 "수행으로 점철된 모습 그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스님들의 지혜와 유훈을 본받고 기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문화원 개관기념 특강

불교TV, 21~27일까지

이어령, 황우석 교수등 초청

봉천동 사옥이전과 함께 불교TV 4층에 새롭게 문을 연 '불교TV 문화원'이 21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후 2시에 명사들을 초청한 문화특강을 마련한다. 이번 특강은 △21일 이어령(중앙일보 고문)—'오늘을 살아가는 문화코드' △22일 황우석(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불교와 생명과학' △23일 강영숙(예지원 원장)—'사람과 사람사이의 예절' △24일 성우스님(불교TV 회장)—'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 △25일 선재스님(사찰음식전문가)—'음식이 성격을 만든다' △26일 엄앵란(방송인)—'가정에서 행복찾기'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02)873-1140

◇정채봉의 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영화 '오세암'에서 주인공 '길손이'가 석등에 올라 앉아 소리 지르는 장면.

애니메이션 영화 '오세암' 25일 개봉

컴퓨터 그래픽으로 자연질감 살려

엄마를 찾아 나서는 애틋한 마음과 해맑은 동심을 담은 애니메이션 영화 '오세암(제작 마고21, 감독 성백엽)'이 25일 개봉된다. 설악산 오세암(五歲庵)의 꼬마보살 설화를 그린 故 정채봉 씨의 동화 <오세암>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이 영화는 다섯 살 꼬마 '길손이'가 앞 못보는 누나 감이, 삽살개 바람이와 함께 엄마를 찾아 떠나면서 시작된다. 길을 가다 설정 스님을 만난 길손이는 겨우내 스님의 암자에서 마음의 눈을 뜨는 기도를 하기로 한다. 그러나 길손이는 조용해야할 선방으로 날짐승을 몰고와 소란을 피우고 법회중인 스님들 신발을 모두 나무에 달아 놓기도 하는 등 순식간에 조용한 절을 소란하게 만든다. 결국 암자에 혼자 남겨지지만 기도를 통해 관세음보살의 현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다.

원화만 6만여 장이 들어갈 정도로 대작인 이 작품은 손으로 그린 평면기술(2D)임에도 컴퓨터그래픽을 덧입혀 시냇가의 반짝이는 돌의 빛과 질감까지 자연스럽고 정교하게 살려낸 것이 특징. 특히 눈 덮인 산의 실감나는 장면과 휘몰아치는 눈바람은 세 명의 스탭이 꼬박 3일을 밤새워 작업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

한편 제작사 마고21은 16·17일 오후 4시 수원단오극장과 부천 복사골 문화센터에서 각각 소년소녀가장 900여명을 초청한 '특별 시사회'를 마련한다.

여수령기자

전통국악인 원로서 신예까지

명인명무전 서른번째 무대

15~17일 호암아트홀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살풀이춤 보유자 김묘선씨의 살풀이춤.

전통예술 공연무대인 '한국의 명무명인전' 서른 번째 무대가 15~17일 오후 7시30분 호암아트홀에서 마련된다.

이번 공연은 제 30회를 기념하기 위해 전통음악 및 춤 분야의 원로에서 신예에 이르는 예인들이 대거 함께 무대에 선다. 특히 현역 최고령 국악인 심소 김천흥 선생이 93세의 고령에도 불구,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초 스님(인천시 인간문화재)과 자은 스님(하와이 자은사 주지)을 비롯해 승무 이수자 양대승·박종필·노수은,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 강승연, 살풀이춤 이수자 김묘선, 임이조 남원시립국악단 예술감독 등이 출연해 진도북춤과 가야금 병창, 피리 독주, 한량무, 승무, 살풀이춤, 춘앵전, 원향살풀이춤 등을 공연한다. 한편 5월 13일 오후 7시 30분에는 부산 문예회관 대극장으로 무대를 옮겨 김진홍, 엄옥자, 정재만, 안숙선, 정명자 등이 동래한량무, 원향 살풀이춤, 승무, 판소리, 소고춤 등을 선보인다. (02)585-7318.

김주일기자

심곡암 산사음악회·꽃축제 27일

다도 시연·달마도 선화전도 열려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봄꽃 물결속에 음악과 꽃이 한데 어우러진 북한산 심곡암 '제 4회 산꽃축제와 산사음악회'가 27일 열린다. 진명 스님(불교방송 '차 한잔의 선율' 진행자)의 사회로 이루어질 이번 축제에는 동요가수 이성원, 대금산조 명인 나동욱, 이명진 무용단 등이 출연해 음악과 춤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공연에 앞서 낮 12시 30분 부터는 심곡암 다도회의 다도시연도 마련된다.

또 5월 8일까지는 송담·석정·일장 스님 등 고승대덕들의 달마도 선화전이 펼쳐진다. (02)914-8860

◇지난해 5월 열린 심곡암 산사축제.

박범훈교수의 불교음악회 '念' 16일

조계사등 9개 사찰 합창단 공연

박범훈 교수(중앙대 부총장)의 불교음악회 '念'이 16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열린다. 그동안 박 교수가 작곡한 이번 음악회에서는 교성곡 '부모은중송'과 '보현행원송'을 비롯해 '탑돌이', '어화너', '가야지' 등의 찬불가가 연주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조계사, 구룡사, 불광사 등 서울시내 9개 사찰에서 25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불교연합합창단과 국악인 김성녀, 김영임씨 등이 출연한다. 한편 이날 공연이 끝난 뒤에는 도올 김용옥씨의 특강도 펼쳐진다.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btn 불교텔레비전 <ch 32>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05:25 경전공부
09:05 찬 한잔의 선율
15:05 음악의 마을
16:45 룸비니 동산
19:20 유쾌한 저녁길
23:25 지혜의 샘터

16일 20:30 무비스님의 법화경 강의
17일 09:05 최완수의 우리문화 바로보기
18일 22:00 퀴즈 야단법석
19일 07:40 야! 부처님이다
20일 15:05 자비의 천수천안
21일 07:40 팡팡 룸비니동산

하이라이트

■**불교방송**:유쾌한 저녁길(18일 18:15): 문화평론가 하재봉 씨가 진행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동반자, '유쾌한 저녁길'에서는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행되는 김포 애기봉 점등식 현장을 연결,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불교텔레비전**:무비스님의 법화경강의(16일 20:30): <화엄경>, <금강경>과 함께 대승삼부경(三部經) 중의 하나로 '경전 중의 꽃'으로 평가받는 <법화경>. '모든 중생은 성불(成佛)한다'는 가르침을 담고있는 <법화경>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의 강의로 들어본다. 이 시간에는 '서품' 중 '법회의 청중'을 강의한다.

"자비의 등 지혜의 등"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주름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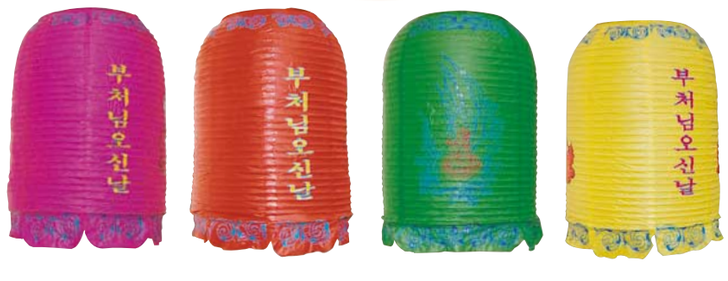
보관상태

팔모조립등

공단등 (비단등 실크등)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종 등



만월등

※ 연등에 사찰이름을 인쇄할 경우 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